

오디션 대본

- * 선택 대본 중 하나를 골라서 부탁드립니다. (공통 대본은 필수! / 선택 대본 두 개 다 하셔도 좋습니다.)
- * 대사는 본인의 입에 맞게 조금씩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 * 캐릭터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본인의 해석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 * 헤어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녹화 부탁드립니다.

1. 공통대본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ㅇㅇㅇ입니다. 저의 mbti는 LEAD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리더가 되어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이 헌신짝이 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쉬는 시간마다 미니 농구를 할 수 있게 교실 뒤에 농구 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틱톡 촬영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교실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급식 우유는 초코 우유로 바꾸고 금요일 방과 후마다 간식 파티를 열겠습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 공약을 무조건 지키고, 언제든지 건의사항을 받아 해결하겠습니다. 5학년 2반의 미래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2. 선택 대본1

진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니 나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너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3교시에 영어 시험 봤잖아. 잘 봤어? 혹시 너 그거 17번 문제 기억나? 답이 3번인데 내가 4번으로 잘 못 쓴 거야. 나 그 문제 아는 거거든. 잠깐 실수해가지고 답을 잘못 적었어. 그것만 아니면 나 백 점인데... 진기야 우리 답 하나씩만 고칠까? 네가 망만 봐주면 내가 선생님 자리에서 시험지 빨리 찾아서 너 거랑 내 거랑 답 하나씩만 빨리 고쳐서 나올게. 너도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잖아. 나도 이번에 1등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서 그래. 이따가 학교 끝나고 화장실에서 만나자. 선생님 퇴근하고 나서 빨리하면 돼. 알겠지?

3. 선택 대본2

나는 괜찮아. 내가 소심하고 말도 없으니까 1학년 때부터 애들이 맨날 놀리고 그랬어. 이제는 애들이 그래도 별로 기분 안 나빠. 그냥 조금 참고 집에 가서 동생이랑 핸드폰 게임 하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 중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너무 신경 안 써줘도 돼. 괜히 나한테 말 걸고 친한 척 하면 애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 난 지금이 좋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혹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로 괜찮아.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말 걸어줘서 고마워.